

투데이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상자를 받은 김기덕(52) 감독은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영화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거친 환경 속에서 잡초처럼 살아온 그는 미술적인 재능을 독학으로 깨우치는 등 타고난 예술성으로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인간성의 극단적 측면을 영화로 표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유한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1960년 봉화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공식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농업학교에 갔고 결국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고 제대 후에는 프랑스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도색한다.

1990년 첫 영화 '악어'를 연출, 영화를 처음 본지 불과 4년 만에 감독으로 데뷔한다. 1998년 세 번째 작품 '파란 대문'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파노라마 부문 개막작으로 상영되고, 다음 작품 '섬'이 2000년 베니

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으며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는 월드시네마상을 받았다. 같은 해 대학로에서 불과 3시간 만에 찍었다는 '실제상황'도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다.

이어 2001년 '수취인불명'으로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2001년에는 '나쁜 남자'로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다. '나쁜 남자'는 국내에서 7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면에서도 처음으로 성공한다.

2003년 연출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는 국내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쥐며 국내에서도 드디어 인정받는다. 이어 2004년 '아마리야'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한 해에 세계 3대 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한 그는 세계적인 거장 감독의 반열에 오른다.

2005년에는 '활'로 칸국제영화제

의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정됐고 2007년에는 '숨'으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다. '아리랑'은 2011년 칸영화제에 출품돼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는다.

김감독이 이렇게 유럽에서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 평론가들은 김감독 영화 특유의 아성적인 매력과 종교적인 메시지,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을 꼽는다.

/연합뉴스

베니스 주인공 김기덕 '아웃사이더의 승리'

지역잔치 전략 '아트광주' 존폐 위기

유명 화랑 대거 불참...기업·컬렉터도 등돌려

지난 5일 프레 오픈을 시작으로 9일까지 열린 '아트광주 12'가 막을 내렸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여 국내외 미술계에 적극 알렸다는 긍정적 평가보다 국내외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람객 뿐 아니라 컬렉터들이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도 실패,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유명 갤러리 불참, 예산 부족 겹쳐=아트광주조직위원회에 따르면 5일~9일간 열린 '아트광주 12'에는 애초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사치(Saatchi) 등 해외 유명 갤러리와 뉴욕 APT(Artist Pension Trust·작가 연금신탁) 등이 불참했다.

여기에 지난해 참여했던 가나아트

갤러리 등 국내 대형 갤러리도 대부분 불참해, 국제아트페어의 위상에 어울릴만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문화재단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화랑을 무료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해 부스 판매수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도 아트페어 위상을 하락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을 대회를 치르는데 들어갈 예상 사업비 6억원 중 국·시·군·구에 나머지를 민간 기업 후원금과 기업 부스 판매 등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후원 기업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마케팅 능력 부재=경기 침체에

미술계 불황까지 맞물린데다, 해외 컬렉터의 관심을 끌거나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홍보·마케팅 능력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한 갤러리 대표는 "전국에서 갤러리들이 참여해 행사의 구색은 맞췄지만 정작 기업과 컬렉터들은 전혀 끌어오지 못했다"

고 주최측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광주시가 사실상 주최하고 있음에도,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과 국내외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광주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1억8000만원)과 정부가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품을 구입해 주는 '아트뱅크' 혜택도 대부분 지역 작가들 위주로 돌아가게 해 나머지 갤러리들을 끌어들이로 전락시켰다는 비난도 나온다.

'지역 잔치'를 할 거면서 왜 수도권과 타지역 갤러리를 끌어들였느냐는 비판이다. 전시장에는 시립미술관측이 구입했다는 표시로 붙여놓은 '빨간 짹지'가 곳곳에 붙은데다, 대부분 지역 작가들 위주로 이뤄져 시립미술관이 이번 행사는 '최대 컬렉터'로 떠올랐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정체성도 없는 벼룩 시장 형태의 '아트페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과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10일 '아트광주 12'에 대한 종합적 결산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다. /김지미 기자 dok2000@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재 미국 측에 송금된 65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 측 파트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광주시의회의 한미합작법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불참 배경에 대해 입장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F1카트 경기장 개장

국내 최대 규모의 F1카트 경기장이 9일 영암 F1 경주장에 개장됐다. 개장식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한영수 한국자동차경주 협회 부회장 등이 개장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F1 카트 경기장은 F1경주장 내 1만500평의 부지에 1.2km 길이의 하이브리드 코스로 설계돼 카트 대회와 일반인의 카트 체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J프로젝트 삼포지구 2단계 사업 진척

중국 업체 2500억 투자 협약...F1경주장과 연계 개발

전남도와 중국 투자기업이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일명 J프로젝트) 중 영암 F1 경주장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삼포지구(241만5000㎡)에 1787만3000㎡를 준공했으며 2단계 사업 착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9일 "중국 투자기업이 중태건설그룹유한공사와 지난 7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삼포지구는 전체 428만 8000㎡로 지난 2010년 10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1단계 사업으로 F1경주장 187만3000㎡를 준공했으며 2단계 사업 착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2단계 도시 조성에 대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F1경주장과 연계한 2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태건설그룹주식유한공사는 2001년 설립돼 현재 중국 내 직원 수가 6만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협약서에 따라 중국 투자기업은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해 전체 부지 241만5000㎡를 조성하고 호텔 등 관광시설 및 모터스포츠산업, 주거·상업단지 등을 조성한다.

또 중국 투자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과 7월 중원고신한국(주)과 중태건설한국(주) 등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태풍 피해 전남 농가 벼 정부가 사들인다

현영희 의원 사전구속영장 기각...검수사 난항

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8일 오후 발표문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

'불라벤'과 '멘빈' 등 경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전남지역 농가의 벼를 정부가 사들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9일 "염해와 벼 이삭 마름(백수) 피해 농가에서 재배한 벼를 짚정 등외 규격"을 신설해 시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벚꽃제개 작업료·조사료·재배농가 종자대,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농약대 지원 등도 견의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힐프라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어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주방보조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3.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급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주방보조 월 120만원

4.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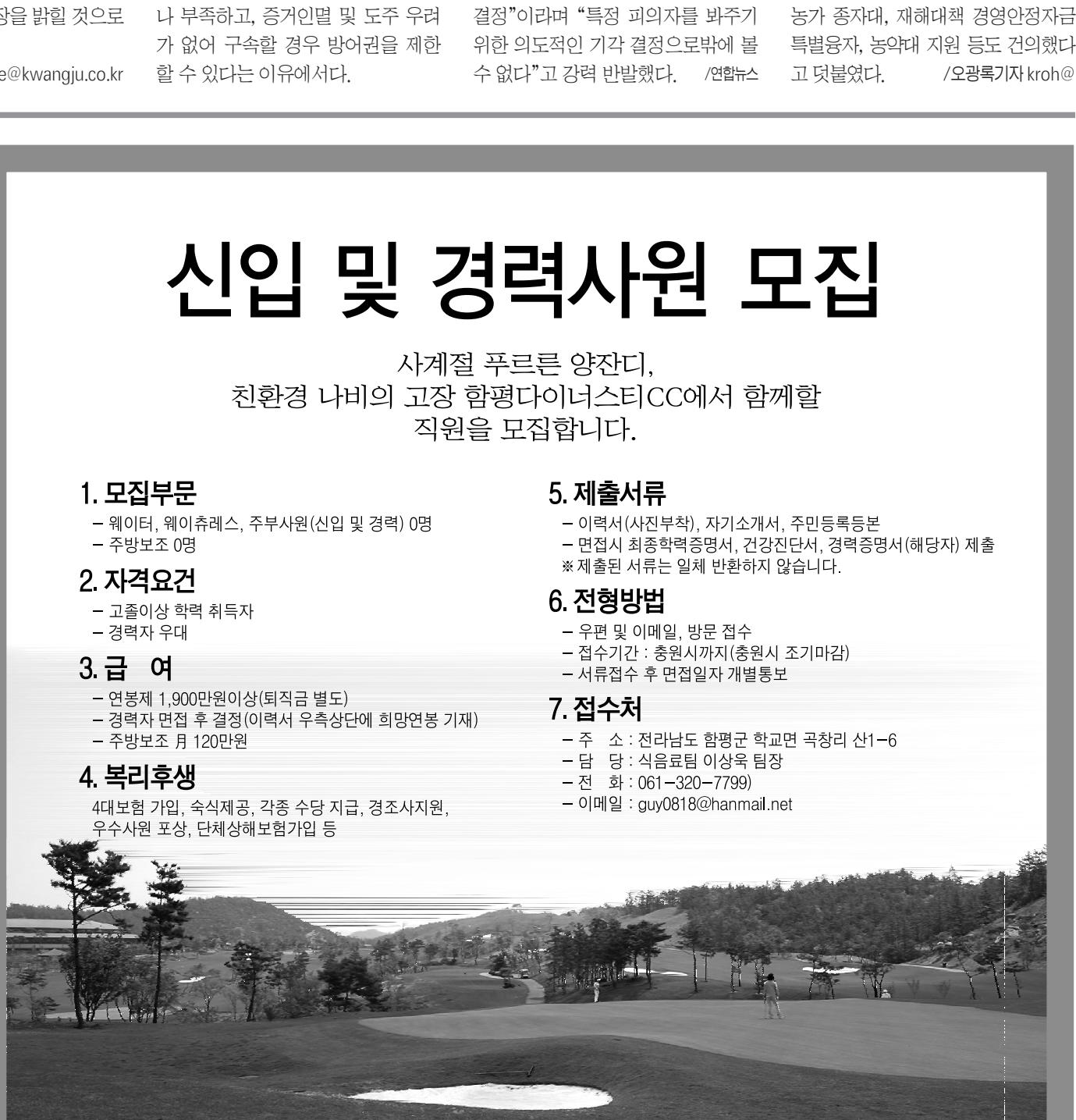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기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 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50년 전통

북경당 한의원

항상 아웃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오늘도 동행한다
가문의 대(代)를 잇는 북경당 한의원
마음에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정성(精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운 꽃중의 꽃이여라

- 김동신 詩 일부발췌-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9월 증 확장이전

전야고 예술의거리 금남로
대한생명 주차장 세종약기
한미쇼핑 김병원 대인제동의원

문의전화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환경심의원 제080130-증-26%호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 ~ 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씨티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삼성카드폰 9,000,000원	1,880,000원
더불어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로손은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 215, 302호